

珍山 邑內里의

高麗石槨墓와 出土遺物

姜 仁 求

一、머리말

여기에 紹介하고자 하는 古墳은 高麗中期의 小規模 長方形 石槨墓로서 筆者가 扶餘博物館에 在職時 埋藏文化財 申告로 入收된 一連의 遺物을 보고 出土地를 確認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出土遺物의 全量이 確保되었는지 의문이고 따라서 出土狀況 같은 重要한 部分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이처럼 考古學의 對象으로서 充分한 要件은 갖추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計劃의인 古墳調査가 어려운 형편이고 더군다나 日帝時代 이후 高麗磁器를 貪하는 盜掘꾼에 의해 거의 대부분이 파괴 滅失되었기 때문에 高麗古墳文化의 實相을 밝히기에는 資料가 太不足이고 또한 高度로 發達하였던 金屬工藝나 青磁의 確實한 資料로서는 이만한 程度도 대단히 要緊하기 때문에 不足한대로 小稿를 紹介하는 것이다.

二、發見經緯 및 位置

이 古墳의 所在地는 忠淸南道 錦山郡 珍山面 邑內里 四三九—一番地인데 一九七五年 六月初 土地所有者가 高구마밭의 골을 高르다가 突出된 돌을 뽑아냄으로써 發見되었고 同年 七月 二九日에 錦山郡 文化公報室의 辛永柱氏가 扶餘博物館에 申告하여 왔다.

古墳所在地的 位置는 珍山에서 全州로가는 國道의 右側 即 石幕里 쪽으로 四〇〇m 距離에 있는 稜線上에 있다. 이 稜線은 鳥項里山(海拔 六〇〇m)의 西쪽 稜線으로 前方은 平野가 펼쳐져 있다. 그리고 古墳이 所在한 稜線의 左右側에 突出된 稜線이 보이는 점은 역시 當代의 盛行한 風水地理思想을 根據로한 墓地選擇이라고 할 수 있다.

三、古墳構造

墳丘는 現在 전혀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는데 이곳이 오래 前부터 밭으로 耕作되어 온 점으로 보아 墳丘가 없어진지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古墳의 內部는 二五~三〇cm 정도 크기의 自然石을 쌓아 만든 長方形 竪穴式石槨인데 長軸을 稜線의 方向과 一致하게 西向하도록 築造하였다. 四面壁은 自然石을 三~四段으로 쌓고 돌의 面을 맞추어 壁面을 均整하였을 뿐 灰를 바르지 않았다. 바닥은 아무 施設을 加하지 않고 맨바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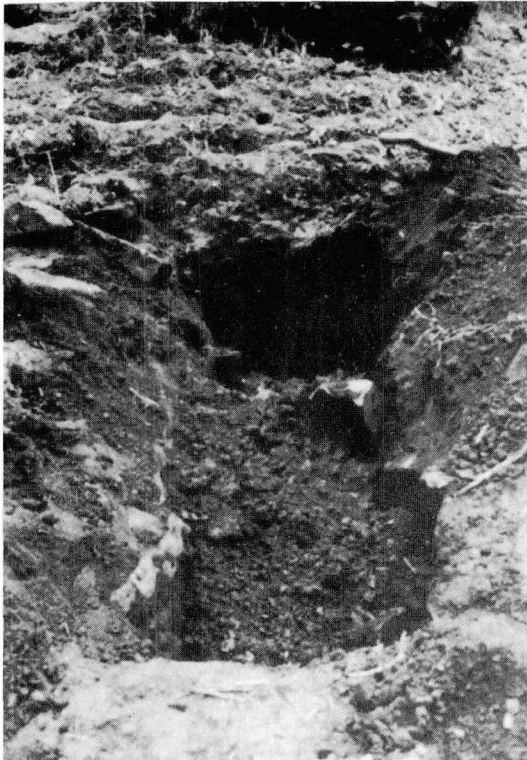


圖 1 珍山 邑內里 石槨墓

을 그대로 利用하였다.

蓋石은 東端의 一枚石(두께 二一(一五cm)만이 남아 있고 그의 것은 모두 없어졌다. 現在의 耕作土層은 約 三〇cm인데 蓋石까지의 土層 두께는 二二cm 정도이니 開墾後 점차 빼버린 것으로 생각된다.

石槨의 크기는 南北 두 長壁의 길이 二六〇cm이고 東西 두 短壁의 길이는 上寬下促이 되어 東壁은 六六cm 西壁은 五五cm로 東壁이 一cm 가량 길다. 石槨의 깊이는 壁面이 가장 잘 남아 있는 東壁이 八〇cm이다.

葬法으로는 屍骨이 없고 遺物의 配置를 민을 수 없기 때문에 確實하게는 말할 수 없으나 이 古墳의 墓地選擇에 風水地理思想을 根據로 한 점과 石槨의 構造에서 東寬西促으로 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東枕일 것이며 槨內 크기나 遺物組合上으로 보아 成人女性의 仰身直肢葬으로 생각된다.

四、出土遺物

이 石槨內의 遺物은 土地耕作者에 의하여 임의로引出된 얼마후 郡當局에서 收去하였기 때문에 遺物의 出土狀況이나 配列은 전혀 민기 어려우며 遺物도 一部는 逸失되었을 可能性이 크다. 申告된 遺物은 白銅釵子 一點 靑銅匙 一點 靑磁類 九點등인데 이에 대하여 간단히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① 白銅釵子 一點

가는 白銅線을 구부려서 만든 것인데 길이 九·一cm 굵기 二cm, 다른 古墳出土品에 비하여 細長한 것이 特徵이며 女性用 뒤머리 꽃이로 보여진다.

② 靑銅匙 一點

飲食物을 뜨는 部分 即 匙面이 圓形과 柳葉形의 中間정도 長橢圓形을 하고 있다. 全體도 側面에서 보면 S字形으로 심하게 구부러졌고 柄部는 細長한 분 아무런 裝飾이 없다. 길이 二六·六cm 匙面幅 三·七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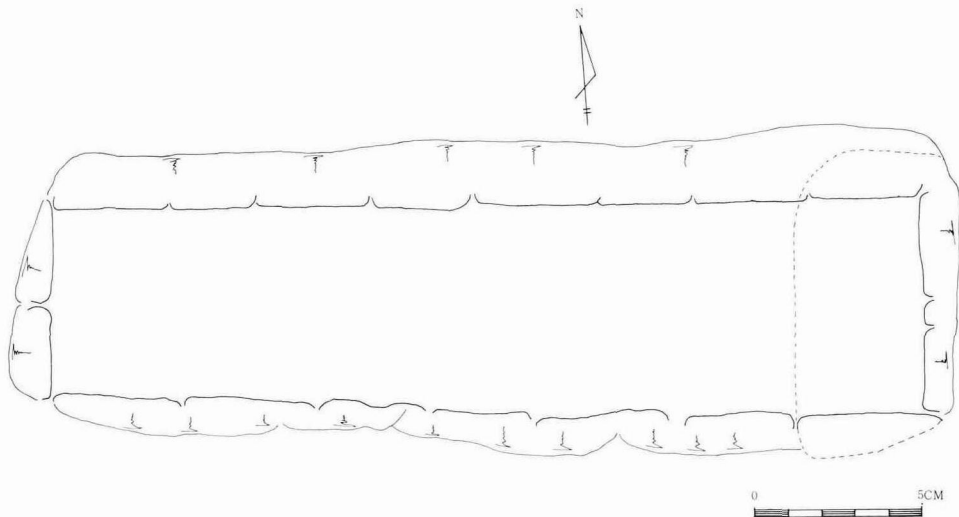


圖 2 珍山 邑內里 石槨墓 實測圖

③ 青磁陰刻連半圓文盤口瓶 一點

器肩과 器胴體의 線이 球形으로 깨끗이 내려간 形態를 하고 비교적 頸部와 廣口의 外反한 盤口를 하고 있다. 底部도 縮約이 分明하여 마치 銅器를 보는 듯하다. 器肩에는 얇은 것 같은 半圓形을 連接하여 二條線을 平行되돌림 하고 半圓하나에 三條의 垂直線을 下部로 내리 그었다.

釉藥은 黃青色이고 두텁게 施되었다.

高 二四 cm 口徑 八·二 cm 胴徑 一五 cm 底徑 八·三 cm

④ 青磁盃 四點

四點 모두 크기와 모양이 약간씩 다르다. 굽은 모두 갖추어져 있는데 乳形으로 突出한 것이 三點이고 一點은 偏平하게 되어 있다. 器身의 線은 거의 直線에 가까운 것이 三點이고 一點은 弧線이다. 釉藥의 色調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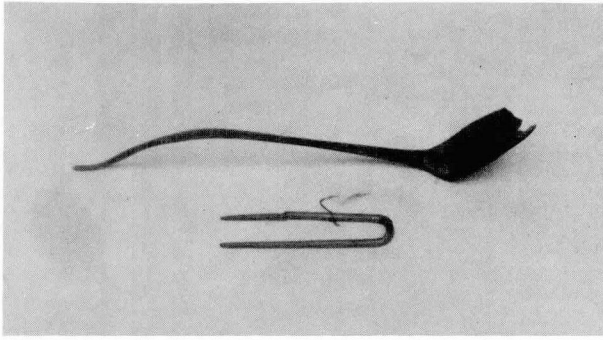


圖 3 青銅匙·白銅釵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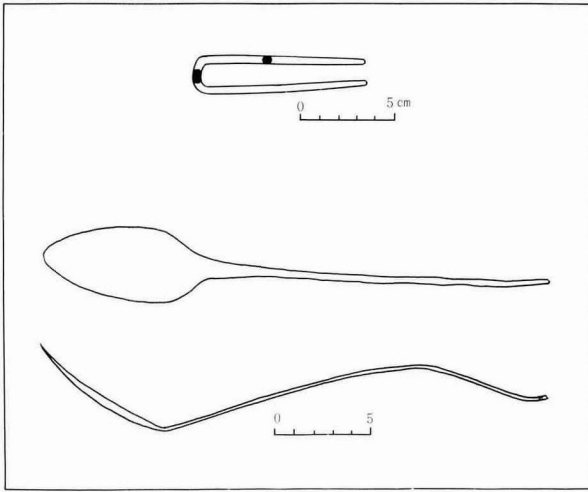


圖 4 青銅匙·白銅釵子 實測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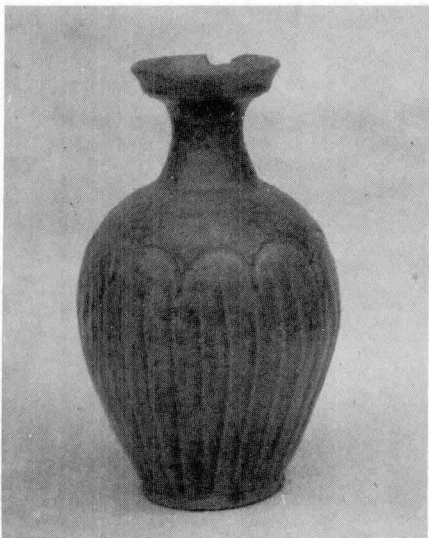


圖 5 青磁盤口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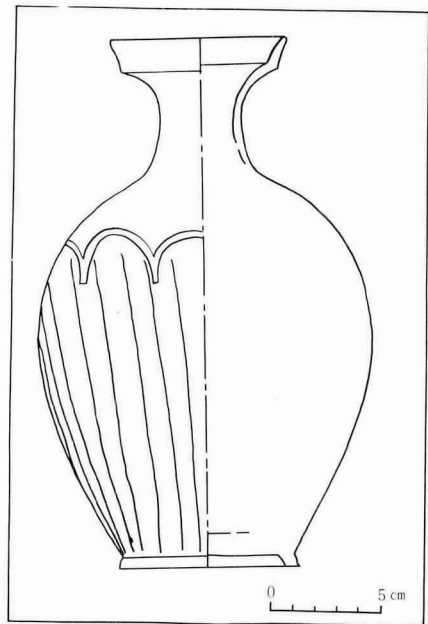


圖 6 青磁盤口瓶 實測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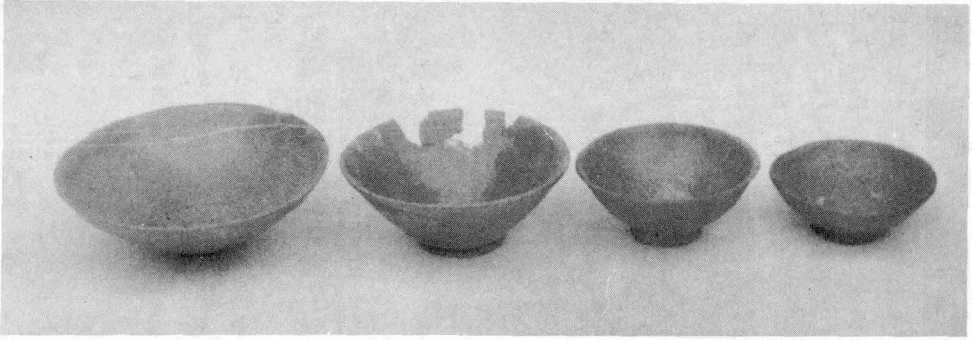


圖 7 青磁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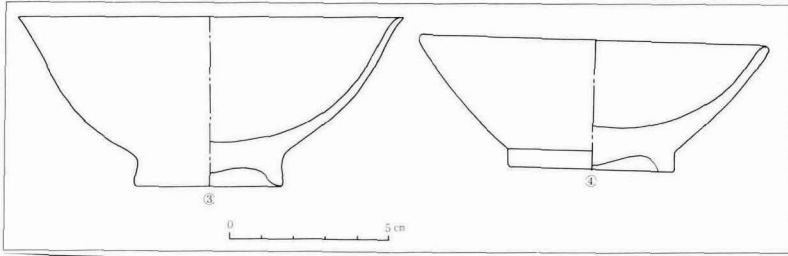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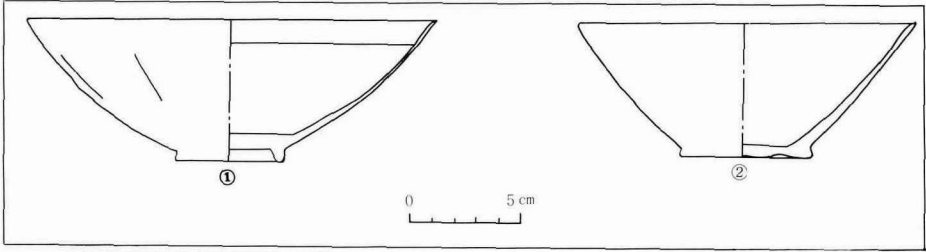


圖 8 青磁鉢 實測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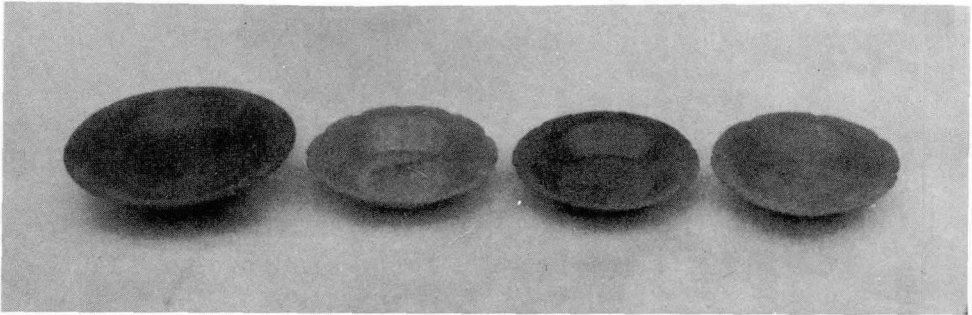


圖 9 青磁접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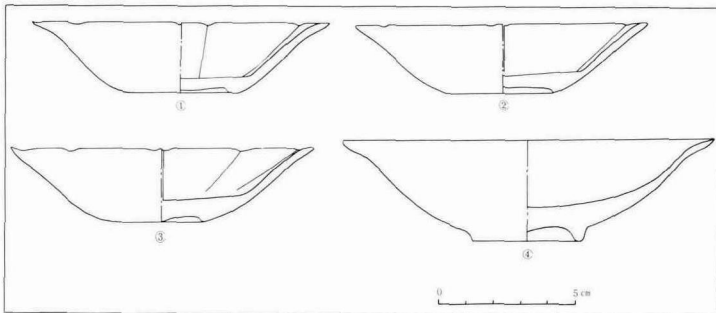


圖 10 青磁 접시 實測圖

三點이 盤口瓶과 같고 一點은 黃色이 질다.

- ① 高六·四 cm 口徑一八·八 cm 底徑四·八 cm
- ② 高六·三 cm 口徑一五·六 cm 底徑六·二 cm
- ③ 高六·四 cm 口徑一二·四 cm 底徑四·八 cm
- ④ 高四·一 cm 口徑一一·四 cm 底徑五·二 cm

⑤ 青磁접시 四點

三點은 口緣部가 六稜·八稜·十一稜形의 花瓣形을 하고 있다. 그리고 口緣은 거의 水平으로 外反하였고 一點만 楕圓形을 하고 있다. 釉藥의 色調는 역시 같다.

- ① 高二·六 cm 口徑一一 cm 底徑三·六 cm
- ② 高二·五 cm 口徑一〇·八 cm 底徑三·六 cm
- ③ 高二·七 cm 口徑一一·二 cm 底徑三·一 cm
- ④ 高三·六 cm 口徑一三·七 cm 底徑四·一 cm

五、考 察

여기의 石槨墓와 같은 小形의 古墳들은 우리가 요즘 흔히 보는 墳墓와 같이 작은 墳丘를 만들고 石槨이 地下로 내려가기 때문에 거의가 流失되어 完全한 形體를 찾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이 古墳도 역시 墳丘가 일찌기 流失 平地化되었기 때문에 耕作地로 開墾이 된 듯 하다. 石槨의 構造는 江華郡 外浦里①와 保寧郡 大川邑 竹亭里② 또 襄陽 甘谷里③ 石槨의 構造와 같다. 이들 古墳의 石槨은 自然石塊를 使用하여 長方形 一m 以內 길이로 만들고 위에는 역시 板狀形의 自然石을 덮은 形式인데 高麗古墳이 集中 分布된 開城附近이나 江華地方에서도 별로 發見되지 않는 形式이다. 따라서 王陵級이거나 上流層이 아닌 身分者의 무덤은 아직까지 發見되는 數字로 본다면 土壙墓가 훨씬 많은데 아마도 當時의 佛敎思想과 關係가 있지 않을까 推測된다.

出土遺物을 考察한다면 먼저 靑銅製 匙를 볼 필요가 있다.

柄部가 細長하고 匙面의 폭이 三·七 cm 長이가 八·四 cm 로 역시 統一期의 것에 비하면 細長하여 졌다. 이러한 形式은 京畿道 長湍郡 長道面에 있는 高麗 仁宗 長陵④에서 出土된바 있어 年代 考定에 좋은 基準이 되고 있다. 仁宗 長陵의 年代는 仁宗이 一一四六年 A·D 에 薨去하였으므로 匙의 製作年代는 이에서 멀지 않은 前期期일 것이다.

또 靑磁類로서는 우선 盤口瓶을 들 수 있는데 口緣部가 盤口形으로 되고 頸部가 길고 器肩이 半圓狀으로 흘러내리며 陰刻文樣으로 連接半圓文과 垂直線의 配置, 器底部의 縮約이 分明하여 銅器에서 오는 線感을 주는 形式은 이미 一世紀後半에 出現되는 器形이다⑤. 또 四點이나 되는 접시에 있어서도 口緣部가 花瓣形으로 되고 瓣線이 內底까지 계속되는 樣式은 一世紀末에서 二世紀初로 推定되고 있다⑥.

이상 靑銅匙와 靑磁를 根據로 하여 이 石槨墓의 年代를 推定한다면 靑銅匙가 一世紀前期 靑磁盤口瓶이 一世紀末, 靑磁접시가 一世紀末—二世紀初가 됨으로 무덤의 年代는 적어도 一世紀前期 이하로는 내려 가지 않을 것으로 思料된다.

〈註〉

- ① 大正五年度 朝鮮古蹟調查報告 P、五五五 朝鮮總督府 一九一六年
- ② 姜仁求·「扶餘地方의 高麗古墳과 出土遺物」 湖南文化研究 第七輯 P、一七三 全南大學校 湖南文化研究所 一九七五·六
- ③ 崔夢龍·「江原道襄陽郡甘谷里所在 高麗古墳及 先史遺物에 對하여」 歷史學研究Ⅳ 全南大學校 文理大 史學科 一九七二·八
- ④ 野守健·「高麗靑磁研究」 一九四四 東京、李蘭映·「韓國匙著의 形式分類」 歷史學報 第六十七輯 P、一二五 歷史學會 一九七五、九
- ⑤ 崔淳雨·「高麗陶磁의 編年」 世界陶磁全集 一八 高麗 P、一四一—一九七八、小學館、東京
- ⑥ 崔淳雨 前掲論文 P P、一四四—一四五

(一九八〇年 六月 一五日 嶺南大學校 文理大 教授)